

# 기상청-한국전기안전공사

## '기상기후·전기안전 융합서비스' 개발 맞손

- 기상정보 활용 전기재해 위험예측으로 국민 안전 강화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날씨에 따른 전기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월 24일(화),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와 '기상기후·전기안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국민 안전 강화 및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정책 방향에 맞추어, 양 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결합하여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위험예측·사전점검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 협력 분야: 기상·전기안전 정보 공유 및 융합서비스 공동 개발·제공, 기상·전기안전 관련 정책 협력 및 자문, 교류·홍보 등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날씨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폭우, 폭염 등 기상 현상이 정전, 전기설비 손상, 감전 등 전기재해 위험을 증대시키는 만큼,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예측과 선제 예방 중심의 과학적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융합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상청은 과거의 기상관측 자료와 한국형수치예보모델(KIM)이 생산하는 기상예측 자료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기설비 점검 이력, 사고 자료 등의 전기안전 정보와 융합·분석하여, 연말까지 인공지능(AI) 기반 누전설비 위험예측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를 내부 시스템에 탑재·표출하여 위험기상이 예상될 때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 위험·취약 설비를 사전에 찾아내고 점검 우선순위를 신속하게 판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전기사고

예방 활동에 활용할 방침이다.

기상청은 향후 기상예보·관측 자료를 사회 안전망 곳곳에 접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붙임 기상청-한국전기안전공사 업무협약식 사진

|       |                      |     |     |                    |
|-------|----------------------|-----|-----|--------------------|
| 담당 부서 | 기상서비스진흥국<br>기상융합서비스과 | 책임자 | 과 장 | 선지홍 (042-481-7490) |
|       |                      | 담당자 | 사무관 | 류두희 (042-481-7497) |
| <공동>  | 한국전기안전공사<br>SI데이터부   | 책임자 | 부 장 | 나경태 (063-716-2470) |
|       |                      | 담당자 | 차 장 | 김용진 (063-716-2471) |





| 협약 체결 사진 |

(왼쪽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이사 배계섭, 오른쪽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 국장 인희진)



| 기념사진 |